



Aboard Event\_ NetEvents 2006 Global Press Summit

NetEvents 2006 Global Press Summit

Interview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미디어연구소장

“백달러 노트북은 행복을 위한 프로젝트”



“백달러 노트북”은 노트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아와 빈곤을 없애기 위해 출발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을 통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단순함에 기인한다. 어린이를 교육받기 시작할 때 어떤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

현재 12억의 어린이들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다. 그 중 50%는 저개발국가 특히 지방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열악하고 빈곤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사들 중 1/3은 출근하지 않고, 1/3은 수업에 허대하다. 그나마도 오전후반으로 나누어져 충분한 교육시간을 제공받지 못한다. 이 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실행하기란 3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00달러 노트북 프로젝트는 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인 기회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어린이들이 남은 성장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모토로라 디렉터로 근무한 적 있다. 전자제품 모델에서 마지막 전략은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노트북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재 노트북 가격이 낮아지고, 더 많은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새로운 피치를 넣었을 때 안정성이 떨어지고 종종한 사람은 자기의 지참을 가지고 이동하는 일 같은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한다. 100달러 노트북은 아마도 여러분이 사용하는 노트북보다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는 도덕적인 이슈이지 이익을 위한 의도가 아니다. 노트북 프로젝트에는 상업적인 이익을 내

는 회사의 지분은 없다. 나에게 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어린이들 뿐이다.

이 노트북의 사양은 500MHz AMD x86 프로세서, 128 DRAM, 512 Flash가 탑재돼 있다.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은 제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들 학교와 집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환경에 놓여있다. 파워를 줄인 자가동적으로 구현한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이 노트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듀얼모드 디스플레이다. 밝은 낮에 태양광을 받아서 작동 파워로 자연광을 통해 볼 수 있게 했다. 노트북의 우측 상단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카메라도 설치했다. 네트워크는 메시지를 통해 구현했다. 컴퓨터는 배터리가 15% 남으면 자동으로 꺼지며, 파워가 없어도 항상 메시네트워크는 계속 연결돼 있게 했다. 아울러 100기가 정도의 스토리지가 내장돼 있다.

우리에게 그래픽마케팅은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다. 아이들에게 지급된 이 노트북은 부모들, 또는 이웃들에 의해 다른 곳에 몰려 팔릴 수도 있다. 심지어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의 신발을 다른 부모들이 훔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노트북을 살 수 있는 마켓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노트북을 우체국의 우편물처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수많은 자동차가 미국에서 도난당하지만 우편물 트럭이 도난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것은 절대로 상업적으로 거래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적십자나 교회에서도 도둑은 있기 마련이지만 이것을 훔치는 순간 쓸모없는 것이 돼야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래서 이 노트북은 특정한 어린이에 직접 전달하고, 그 어린이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잠치했다. 또한 다른 SW 추가 설치할 수 없게 했다. 이 보안프로그램은 22년 경력자가 개발자가 만들어냈다.

우리는 2008년까지 100달러로, 2010년에는 50달러로 목표로 세우고 있다. 2007년에는 300~500만명, 2008년에는 5천만~1억5천만명의 어린이들에게 이 노트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